

LGU+ 기지국 통신장비 모두 화웨이… 조작 ‘속수무책’



〈11면에서 계속〉핸디소프트는 2017년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핸디소프트는 정부 부처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다. SK 동북아 사업팀이 종료되고 고한석과 하태경은 2006년 11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다. 창립 멤버는 고한석 소장·조혁 이사·김대호·하태경이었다. 2008년에는 김대호 소장·김두수 상임이사·이범재·권태홍·홍용표 등으로 전환됐고 2011년 김병준 이사장·김대호 소장·김성택 이사·김영환 등으로 전환됐다.

SK C&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K C&C가 ‘하나프로그래멘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한 같은 시기인 2002년 7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문서가 선거과정 조해주로부터 기안이 올라왔다. 그 내용을 보면 SK C&C가 납품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최초로 ‘전자개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SK C&C는 930대의 전자개표기를 전국 242곳의 지역별 선관위에 배치하는 한편 주요 시도 11곳에 지역통제팀을 구성하고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당시 전자개표기 기계는 한틀시스템이 납품했다. 2003년 SK·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대호 부장검사이다.

신기한 것은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실무자 조해주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해주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성과로 홍조근조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홍조근조훈장은 공무원에게 뛰어난 성과나 업적에 대한 포상이다. 당시 기소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준 것뿐 아니라 농협 간부에도 로비를 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화 사장은 자신은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갔지만 “김대중·신건·박지원·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SK C&C는 2003년 10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품과 관련한 금품로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형사 처벌받은 업체는 다시 정부에 같은 사

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SK C&C가 납품하지 않고 한틀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직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게 된다. 같은 시기 콩고에서도 SK C&C와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 콩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주식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같은 해 이상철은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핸디소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산그룹의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2017년 4월 이상철은 화웨이의 총괄 고문(Chief Advisor of Huawei)으로 들어갔다. LG에서 연봉 31억 원을 받았는데 화웨이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이었다.

LGU+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통신망 공식 공급업체다. LGU+는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게 된다. 이상철은 구축했지만 결국 소유는 다산그룹이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철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설계자로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다산그룹은 한국전자투표회사를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대표는 민주노동 출신 이재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공급

·왜 대한민국 정부는 선거 시스템을 북한 프로그램머를 양성하는 남북 합작 회사 하나프로그래멘터를 운영한 다산그룹에게 맡기는가?

·왜 민주당의 굵직한 사건들 옵티머스 사태, 이스타항공 사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산그룹은 수사하지 않는가?

·왜 한국전자투표회사에 민노총 간부가 지분을 가지고 사장을 하는가?

·왜 민주당은 한국전자투표표를 장악하려 하는가?

화웨이 장비 백도어 통해 가상서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선거데이터 실시간 탈취·원하는 명령입력 식은 죽 먹기 서버 보전 신청 소송 결자 선관위서 모든 서버 교체 증거 인멸



2005년 7월18일 남북의 통신망이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연결됐다. 문산·개성을 중단하는 철도와 남북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자점에서 연결식이 열렸다.

KT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 이상철

참고로 2002년, 김대중정부는 북한 사업으로 남북 통신망을 다시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다.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남한의 CDMA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신관료 공사를 진행했다. 김대중정부 마지막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0년 LGU+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이상철이 LGU+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다음해 다산그룹의 다산네트웍스는 LGU+에 4G LTE 장비 공급업체가 된다. 그후 이상철은 2013년 LGU+에 화웨이 LTE 통신 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고 국산 장비 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반대했다.

사용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 사업 제한 경고를 받기로 하였다.

소결론

다산그룹이 하나프로그래멘터를 거래할 당시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바뀌며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다산그룹이 전라도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관광개발은 민주당 이상직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는데 그 지분 5%를 다산그룹이 현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의 이스타항공에 문제인의 딸 문다혜의 남편을 취업시켜 준다. 코스타 기업이었던 핸디소프트를 기업 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이 소유하

하는 ㈜한컴MDS는 다산그룹 다산타워 9층에 함께 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 다산그룹은 다산타워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한다.

한국토지신탁의 대표는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를 나왔다. 그리고 다산타워의 새로운 주주는 모두 가상화폐거래소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이들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가상화폐 60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옵티머스 펀드·이스타항공·김남국 코인 등 3가지 사건에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다산그룹과 문재인,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을 사법기관에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유무선통신장비 - LGU+

2019년 전국 선거개표소에 LTE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LGU+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계약 내역이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20191230825-00번 문건으로 LGU+가 선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장비를 LGU+부터 공급계약을 했다. LGU+가 납품한 장비는 KSX3264 표준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주장하였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망은 폐쇄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폐쇄통신망이라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게 된다. 선관위가 납품받은 장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급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문제인 것이다.

LGU+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며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이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지국의 화웨이 장비에 있는 백도어를 통해 충분히 가상 서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다면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요약하면 LGU+ 기지국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간 조작 명령을 내리는 방법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 네트워크를 구동하여 실시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가상 네트워크보다는 백도어를 통해 조작함수를 심어 넣는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상네트워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 13면에 계속

Future Value, Ask KSA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지식서비스 기관

불확실성의 시대

KSA가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지식서비스기관으로서 지난 60년 표준·품질·인증·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네비게이터로서 궤적을 같이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I(인공지능), 블록체인, BigData, ESG, 스마트공장, 탄소중립 등 산업현장의 체질개선과 디지털 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60년, KSA는 뉴노멀시대 지식가치 전달자로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Key Success Agency 한국표준협회

KSA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DT센터 | TEL. 02-1670-6009 | www.ksa.or.kr

표준 표준정책연구 | 표준개발 및 진흥 | 글로벌표준화 활동 | 표준 발간 및 보급

품질 품질경영 연구 | 국가품질상·분양주 | 서비스품질지수 | 서비스대상

인증 KS·ISO·JIS인증 | ESG, 사회적책임 | 온실가스 에너지 감·인증 | AI·인증 | 로하스·헬빙·실내공기질

교육 기업 교육 및 OJT | 디지털 전환 자격·인증·교육 | CEO 포럼 | 일자리·창업지도 | 경영컨설팅